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전 연령으로 전면 확대

- 기존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면역저하자 건강 보호 강화
- 이식 후 면역력 재확득을 위해 철저한 예방접종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기존 12세 이하에게만 지원되던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전 연령*대로 전면 확대한다.

* 2026년 조혈모세포이식한 신규 이식환자(2026.1.1. 이후 이식한 환자)부터 지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강도 높은 면역억제 치료를 받아 기존에 획득했던 감염병 면역력이 대부분 소실된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 수준의 면역력을 다시 확보하고 합병증을 막으려면 체계적인 백신 재접종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13세 이상(청소년 및 성인) 환자는 고액의 치료비에 예방접종 비용까지 전액 부담해야하는 경제적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번 지원 확대로 감염병 취약 계층인 13세 이상 이식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내용은 15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17종*의 백신접종 비용 전액이며, 접종 지원 기간은 조혈모세포이식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로 이 기간 내에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접종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이식 후 최소 3개월 이후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료인과 상담하여 최적의 접종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확대된 국가예방접종 지원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된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지원 대상 백신과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안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경청 과제 중 하나로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전 연령대 지원 확대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예방접종은 고된 치료 과정을 이겨낸 환자분들의 새로운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든든한 방어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 시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만큼, 환자분들께서는 의료인과 상담하여 본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지원 확대 홍보자료

담당 부서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3-719-8360)
		담당자	연구관	이혁진 (043-719-8365)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2026년 7월부터 무료 접종 가능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부 보건소의 경우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기존 지원대상

12세 이하 어린이 재접종 지원
(이식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

확대 지원대상

전 연령 재접종 지원
(이식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

※ 2026년 조혈모세포 이식환 신규 환자(2026.1.1 이후 이식)부터 지원

지원 백신

15개 감염병에 대한 17종 백신 지원

대상 감염병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 조혈모세포 이식 후에는 예방접종을 다시 해야 합니다

Q 조혈모세포 이식 후, 예방접종을 왜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는 이식 후 1~4년에 걸쳐 기존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Q 접종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백신에 따라 이식 후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부터 접종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접종 일정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합니다